

제24호

慶州崔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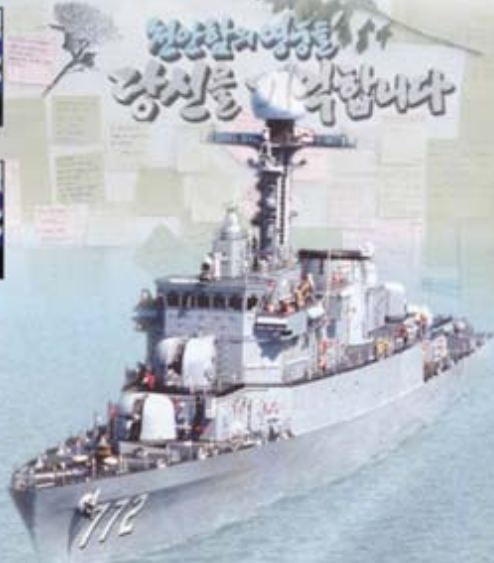
인물포커스 - 광동제약 최수부회장
시조춘형례 - 해운대/상서장/학사당/두곡서원
동정 - 최시중 중앙종친회장 외
형제광장
종친회소식 - 중앙회/부산/호남/경남/충남/경북

www.gyeongjuchoi.com

천안함 46용사들이여 편히 잠드소서!



자랑스러운 “천안함 46 용사”
대한민국은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 2010년 5월 통권 24호



경주최씨경남총친회 / 사단법인 고운 국제교류사업회 경남지회

발행인 : 최효석 / 편집인 : 최옥천 / 인쇄 : 성문정판인쇄사 / 홈페이지 : www.gyeongjuchoi.com / 이메일 : coc1204@hanmail.net
사무국 : 창원시 용호동 7-4 경남무역회관 405호 (주)한국보험컨설팅/ 전화 : 055-285-5548, 5321, 팩스 : 055-285-5057

02	천안함 46용사여 편히 잠드소서...
06	인물포커스(광동제약 최수부회장)
12	시조춘형례
13	부산 해운대
14	경주 상서장
16	합천 학사당
18	마산 두곡서원
20	동정
21	최시중 중앙회장 - 바쁜 국정일정
	최경환장관 - 한중 정상회담 수행 전경
22	최근덕이사장 - 7대 종단대표 청와대 회동
23	최진민회장 - 금탑산업훈장 수상
24	최진식회장 - 심택그룹 신사옥 입주
25	최동규회장 - 채석장 기공
	최효석회장 -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
26	최평규회장 - 소통경영...
28	최충경회장 - 명예철학박사학위 영덕
30	최정심사장 - 경남여성경영인협회 제5대회장취임
32	최예진 - 가수 / 악극 '비내리는 고모령'에 출연
34	광장
	형제이야기
35	최해범 - 거대도시의 탄생
36	최미숙 - 시조기념관과 중국 양주시
38	최기석 - 수구초심
	형제기업탐방
39	최남백 - 사시미도횃집
40	최덕희 - 미래상조
42	종친회소식
43	고운국제교류사업회 - 이사회, 고운총서발간
45	부산종친회 - 신임회장 최현돌
46	호남종친회 - 정기총회
48	경남종친회 - 상임고문회의 / 띠앗회
50	진주화수회 - 정기총회
52	창녕화수회 - 정기총회
54	함양화수회 - 정기총회
55	근양종친회 - 정기총회
56	보령화수회 - 정기총회
57	주포, 주교종친회 - 정기총회
58	팔우정종문
60	광동제약(주)



47년 **崔氏**고집 百年 후에도 지켜질 것

한방약제 세계화 제약외길,광동제약(주) 최수부 회장

“40년 최씨고집”이란 카피아래 무딘 손길로 우황을 고르는 모습으로 보는데 뇌리속에 굳은 믿음과 신뢰를 심어준 '우황청심원' 광고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방을 국민건강의 일상생활속으로 승화시킨 제약외길 47년의 자랑스러운 경주최씨 광동제약(주)최수부회장을 만나봅니다.



올해로 창립 47돌을 맞이한 광동제약.

우황청심원과 쌍화탕으로 유명한 광동제약은 IMF 당시 부도 위기 상황까지 내몰렸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 굴하지 않고 비타500이란 신상품을 개발하여 재기와 대역전에 성공했다. 또한 2006년 7월, '광동옥수수수염차'를 출시하여 4년만에 3억병 이상을 판매하여 차음료 판매 1위에 올라서며 제3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광동제약의 뒤에는 47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 동안 한눈팔지 않고, 제약 사업 외길을 걸어온 최수부 회장의 올곧은 소신과 독심이 있었다.

“'비타500', '옥수수수염차', '광동우황청심원', '광동쌍화

탕”들은 지금까지 한눈팔지않고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만 생산 하겠다”마음으로 고집스럽게 살아온 내게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이 배우길 했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돌이켜 보면 회사 문을 연 이후 술한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었고 회사 문을 닫고 당장 길거리로 나왔을 뻔한 적도 많았답니다.”

“일본에서는 조센진, 한국에서는 왕따”

1936년 일본 규슈에서 태어난 최회장은 철공소를 운영하던 아버지 덕분에 비교적 윤택한 생활을 했다. 하지만 학교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조센징으로 놀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본인에게 당하는 이지매(집단 따돌림)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쇠가죽으로 만든 단단한 검도 호신도구 두개를 골라 끝 부분을 얇게 갈아 붕대를 두른 후 가방에 넣었어요. 만약 오늘도 쪽발이들의 괴롭힘이 계속되면 끝장을 봐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죠.

끝장은 바로 오더군요. 그 날도 학교에 가자마자 대어섯 놈들이 조센징이 어찌고, 마늘 냄새가 어찌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왔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무기를 꺼내 닥치는 대로 녀석들을 혼내줬죠. 불과 몇 분 사이에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 날 오후 아버지가 학교에 불러갔고, 저는 바로 퇴학을 당했죠. 제 나이 열 살, 소학교 3학년 1학기 때였습니다.”

해방 직후 최회장은 일본 생활을 정리한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건너와 외가가 있는 경북 달성에 정착했다.

귀국 직후 사업에 손을 댄 아버지는 불과 1년 만에 사기를 당해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렸다. 아버지가 병석에 눕자 그는 열두 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도와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본의 아니게 열 두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집안

생계를 책임지는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었기에 산에서 땀감을 마련, 시장에 내다 파는 일부터 했습니다.

밑천 한 푼 없이 몸뚱이가 전부인 내가 단돈 몇 푼이라도 벌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하고 집으로 들어섰을 때, 담임 선생님과 반장이 마당에 서 있었지요. 내가 말없이 꾸벅 인사를 하자 선생님 역시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내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찾아온 것인데, 내 키보다 한참 높은 나무를 지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학교에 나오라는 말조차 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내 학교생활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일본소학교 2년, 한국초등학교 2년, 그렇게 4년이었습니다. 어찌면 초등학교 4학년 중퇴라는 말도 과분한 셈이죠.”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너무 많았다”

열두살에 처음으로 시장에 나선 그는 군 입대 전까지 온갖 장사를 하며 사업 수완을 익혔다. 제대 후 얻은 첫 직장은 제약회사인 고려인삼산업사 영업사원. 어찌면 영업사원이란 말보다는 ‘경육고’ 외판원이란 표현이 더 정확했다. 그 회사에서 팔 수 있는 제품이라고는 오로지 경육고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경육고의 가격은 2만 원이었는데 웬만한 회사원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먹고살기도 힘든 시절이라 경육고를 사겠다는 사람을 찾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였다. 하지만 최회장은 출근 첫날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남들은 일주일에 하나도 팔기 어려운데, 첫날에 두 개를 판 것이다.

“종로와 광화문을 이 잡듯이 훑고 다녔지만 허사였습니다. 낙담을 하고 회사로 들어가려는데 을지로에 즐비한 양복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득 서울시내 한 복판에서 양복점을 할 정도면 형편

이 꽤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양복점에서 연거푸 퇴짜를 맞았는데 유독 '미양사'라는 양복점 주인만큼은 제 말을 오랫동안 들어주더군요. 그 분이 아내 뒤편까지 2개를 산 겁니다. 그 인연으로 20년 넘게 그 집에서 양복을 맞춰 입었죠."

영업 첫날 2개를 팔아 주위를 놀라게 했던 그는 입사 10일 만에 20만환어치의 경옥고를 판매했다.



다른 영업사원들과 비교도 안 될 실적을 올렸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영업요령은 없었다.

다른 영업사원들처럼 문전박대를 당하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달랐던 점은 퇴짜

맞은 다음날에도 찾아간 것이다. 자신에게 호감을 가질 때까지 10번, 20번도 넘게 찾아갔다.

실제로 그는 '열 번 찍어 안 넘어 간다'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열두 살 때부터 톱이나 도끼로 온갖 나무를 다 베어 보았는데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결국 어린 나이에 얻은 결론은 열 번이건 백 번이건 넘어갈 때까지 찍는 것이었다. 집념과 끈기, 발상의 전환이 영업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열두 살 때 이미 터득했던 것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영업을 했던 그의 일화는 제약업계에서 전설로 회자되고 있다.

"한번은 광화문에 있던 국회로 영업을 나갔어요. 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휴식시간에 회의실에 들어가 홍보전단을 돌렸더니

위원들이 하나같이 의아한 표정을 짓더군요. 한 의원은 '의원 생활 십 수 년 동안 국회 회의실에 뭘 팔러 들어온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창업”

영업을 시작한 이듬해부터 최 회장은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해보겠다는 목표를 세워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매월 7만 9,700환씩, 1년에 100만 환씩 저축했다. 한 달 저금하는 금액이 웬만한 직장인의 대여섯 달치 월급과 맞먹을 정도였다.

그렇게 3년 동안 모은 300만 환을 종자돈으로 드디어 창업을 했다. 용산구 서빙고동에 대지 87평, 건평 30평짜리 집을 산 뒤 뒷마당에 가건물을 짓고, 경옥고를 다릴 수 있는 가마를 설치했다. 광동제약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것이다.

광동제약은 창업 후 10여 년 동안 제약회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생산제품이 적었다. 경옥고와 이동 건재상 두 가지 제품만 가지고는 제약업을 한다고 말하기에 민망할 정도였다.

1970년대 들어서야 겨우 장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쾌장환'과 부인병 치료제인 '비너스환'을 개발해 제조허가를 받았다. 이후 서울 시흥동에 제약회사의 면모를 갖춘 공장을 마련했다. 광동제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쌍화탕과 우황청심원도 바로 이곳에서 탄생됐다.

"기업을 하면서 진짜 어려운 일은 제품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생깁니다. 1977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영업사원에게 대리점을 내줬는데 그 사람이 물건 판 돈을 입금하지 않아 약품 공급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앙심을 품고 자신이 보좌하던 국회의원에게 압력을 가했어요.

국회위원이 찾아와 약사법을 위반하고, 탈세하지 않았냐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지은죄가 없으니 국회에서 폭로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서 보건사회부장관, 국세청장, 법무부 장관에게 광동제약 허가를 취소하고 세무조사와 함께 강도 높은 수사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혹시나 했던 상황이 현실로 닥쳤다. 최회장은 국회 대정부 질의 며칠 후 약사법위반과 탈세혐의로 99일 동안 구속 수감됐다. 하지만 99일 동안의 옥살이보다 더 분하고 억울했던 것은 1심의 유죄판결이었다.

죄를 지었으면 99일이 아니라 999일 동안 수감되어도 억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최회장. 결국 그는 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회사가 받은 타격과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이처럼 몇 번의 시련을 더 겪은 최회장과 광동제약은 1980년대 후반부터 초고속 성장을 했다. 한방 제약사로서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한편 중앙연구소를 설립해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항정신성의약품 취급허가를 따내고, 국내 최초로 B형간염 치료제개발, 효소치리에 의한 우황청심환 제조 등 각종 특허를 취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사람은 위기를 겪지 않은 채 평생을 살 수 없고, 기업은 경영의 어려움 없이 운영될 수 없습니다. 국가 또한 시련 없이 항상 태평성대(太平聖代)를 구가할 수는 없지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위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다가올 시련을 이겨내는 것은 한 가정이나 기업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회 환원에도 이바지 하고, 건전한 기업문화의 정착에도 힘써야”

“사람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는 선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경영을 해왔습니다. ‘경영자가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와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신용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반대로 경영자가 돈을 얻으면 조금 얻은 것이요.

명예를 얻으면 많이 얻은 것이요, 신용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나는 이 세 가지 비결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까지 기업을 해왔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의무는 부지런히 제품개발해서 정성스럽게 우수한 상품을 만드는 것이고, 장사 잘해서 세금 낼 만큼 많이 내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인은 회사가 자기 소유인 양 착각하지 말고 사회 환원에도 이바지해야 하고, 건전한 기업문화의 정착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최수부 회장은 소년가장으로서 쓰러린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힘이 닿는 대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여러 가지 기회를 찾던 중 비록 매출규모가 변변치 않았던 84년에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로 3,60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심장병 어린이에 생명의 등불을 밝히는데 지금까지 매년 2천만원~4천만원씩 지원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까지 26년간에 걸쳐 약 550명에 가까운 심장병 어린이들이 심장병 무료 수술로 새 생명을 찾았다.

이밖에도 광동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신체장애자 1백여명이 수용돼 있는 우성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무료진료를 해주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장학재단인 ‘가산문화재단’을 만들어 소년소녀가장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등 기업의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우향을 고르고 사향을 선별하다 죽고 싶다”



광동제약은 21세기의 핵심산업으로 부각된 생명공학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를 하고 있다. 탁월한 효과의 항암제 개발을 비롯하여 생약 함유 체제의 신약 연구 및 새로운 제형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47년 동안 한방 외길을 걸어온 최수부 회장. 그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 위에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광동제약의 우향청심원으로 심장 질환을 고치고, 경옥고로 체질을 개선하고, 쌍화탕으로 감기 몸살을 치료하고 비타500과 광동옥수수수염차로 건강을 유지시키겠다는 신념이다.

“47년의 긴 행로가 때론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한눈팔지 않고, 묵묵히 제 갈길만을 걸어왔습니다. 지금의 결과가 만족스럽든 그렇지 않든 정직과 신뢰를 최선으로 여기며, 고집스럽게 한 길을 걸었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던 광동의 정신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차 광동제약이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큰 기업으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과 신뢰’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제 손으로 우향을 고르고 사향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비자를 위해 약재를 고르다가 그 자리에서 삶을 마치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끝내며 우리가 궁금해하는 개인사를 여쭙어보자,

* 삼성그룹의 호암 이병철회장 생전에 ‘골프와 자식은 마음대로 안된다’ 하셨지만 화목하다 알려진 회장님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슬하에 1남 4녀를 두고 있으며 아들(최성원 42세)은 현재 광동제약 사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키울 때 공부보다는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애들은 남들 다하는 과외공부 하나 안하고도 모두들 착하고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 최근 종친회 중앙회관건립사업에 큰 후원을 하셨습니다. 아날로그시대에는 종친회 그늘아래 모든 종인이 모여 들었지만 모든 정보가 공유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우선되는 디지털 시대의 종친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종친형제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랜 최고 경영자의 경험과 앞서있는 형제로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의 특성이 우선시 되는 시대이므로 종친회에서도 종인들 각자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친회를 운영, 리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친형제들은 아무리 바쁜 세상이라 하더라도 자주 만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자

라나는 우리 2세대들에게는 고운 최치원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 그분을 거울 삼도록 교육 시켜야 할 것입니다.

* 팔순을 목전에 둔 연세이지만 현재도 젊은이 못지 않는 열정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계십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직은 일밖에 몰라 건강을 돌아보지 않는 아우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 저는 원래 타고 난 건강체질 입니다 만 지금도 꾸준히 운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건강의 비결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늙을 시간이 없더군요. 아우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건강을 제일 먼저 챙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람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는 저의 좌우명을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반평생을 한방의학의 대중화를 앞서서 개척하셨으며, 21세기 생명공학에 일로 매진 중인 최수부회장님과 광동제약(주)가 무궁한 발전있기를 형제님들과 함께 기원하며 인터뷰를 마친다.

(대담 최옥천 / 정리 최상천)

최수부(崔秀夫)회장 주요 프로필

◎ 1935년 12월 25일(음) 출생
광동제약(주) 대표이사 회장

- 1974. 2.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 1983. 3.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 1996. 6.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 대학원 수료
- 1993. 2. 한국제약협회이사
- 1999. 3. 한국 표준협회이사
- 2000. 2. 의약품수 출입협회감사
- 2001. 8. 한국 한약제조협회고문
- 2001. 11. 구로구 상공회장

◎ 광동제약(주)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7-4 가산빌딩

- 1963. 10. 16 광동제약사 창업(용산구 동빙고동)
- 1973. 12. 27 거북표 우형청심원 제조 허가
- 1975 / 1981 모범 납세자 국세청장상
- 1981. 12. 08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 대통령표창
- 1984. 03. 20 새마을훈장 협동장(대통령)
- 1987. 08. 01 중앙연구소 설립
- 1989. 11. 17 기업공개로 상장기업으로 출발
- 1990. 01. 15 송탄 제공장 준공

- 1992. 12. 05 송탄 KGMP공장 준공
- 1994. 01. 16 KGMP공장 환경관리 모범업체(환경체)
- 1994. 04. 30 광동한방병원 개원
- 1995. 12. 27 올해의 환경기업 대상(환경관리공단)
- 1996. 04. 06 국민훈장 목련장(보건복지부)
- 1997. 08. 15 대구사육 준공
- 1997. 12. 13 노사협력우량기업(노동부)
- 1998. 03. 03 모범 납세자 재경부장관상
- 1999. 07. 20 생약복합체의 조성물(사향대체청심원)특허(234494)
- 2001. 10. 11 신노사문화 우수기업(노동부)
- 2002. 04. 01 남녀고용평등대상 고용기회평등부문우수상(노동부)
- 2005. 03. 28 제43회 동임약의상(약업신문사)
- 2005. 04. 26 비타500,마케팅대상 명품브랜드상(한국능률협회)
- 2005. 10. 21 한국소비자 웰빙지수 1위(한국표준협회 컨설팅)
- 2006. 03. 14 한국의 경영자상(한국능률협회)
- 2009. 02. 01 광동옥수수수염차 2억병 판매 돌파
- 2009. 03. 06 경제정의기업상 최우수상(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 2010. 03. 02 비타500 출시 10년차 25억병 판매 돌파

시조춘형례

부산 해운대



경주 상서장



합천 학사당



마산 두곡서원



4월 17일 11:00 부산 해운대 동백섬 정상에서 시조 촌형례 및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최규식사무총장의 사회로 초현관에 배덕광(해운대구청장), 아현관 최현돌(기장군수), 종현관 최남수(직전회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돌 기장군수께서 신임회장에 선출되었다. (취재 : 최기락 부산종친회부회장)



4월 16일 11:00 경주시 황오동 상서장에서 시조 촌향례 및 (사)경주대총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현관에는 초헌관 최익용(일본거주, 전 종친회장), 아헌관 최종석(대구), 종헌관 최상화(경주)님께서 수고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신 수많은 종인들이 함께 축원하며 향례가 성료하였다.(취재 최상천경남종친회사무차장)





일시 : 2010년 4월 6일 11:00
 장소 : 합천 가야산 학사당
 참석인원 : 약 100여명
 초헌관 : 최영건, 아헌관 : 최호철, 종헌관 : 최고영
 집례 : 최원수, 대축 : 최병욱, 알자 : 최우석
 봉향 : 최두병, 봉로 : 최태석, 봉작 : 최계훈
 존작 : 최원조, 사준 : 최진호, 학생 : 최창석

행사내용

- * 경상북도 합천에 위치해 있는 홍류동 학사당에서는 고운 최치원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향사를 하는 곳이다.
- * 올해도 한식에 맞추어 종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례를 올렸다.
- * 경주최씨중앙종친회에서 최영건사무총장이 참석 초헌관을 지냈다.
- * 경주최씨중앙종친회 회장 최시중, 명예회장 최영, (사)고운국제교류사업회 이사장 최근덕은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헌성금을 전달하였다







4월 18일 11:00 마산시 두척동 두곡서원(원장 정수학) 시조 춘형례가 수많은 지역 종인들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두곡서원 춘 형례는 작년부터 종인들과 창원향교 유림들이 공동으로 집전을 하고 있으며 초헌관000, 아헌관000, 종헌관000 및 많은 종인들께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취재 최태석 경남종친회사무차장)





동정

최시중회장, 최경환장관

최근덕이사장

최진민회장

최진식회장

최동규회장/최효석회장

최평규회장

최충경회장

최정심회장





국무회의 참석중인 최시중 중앙회장 / 춘추관제공



상하이엑스포 한,중 정상회담 수행중인 최경환장관 / 춘추관제공



〈춘추관제공〉

4월 21일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께서 종단 지도자분들로 부터 천안함 사고 이후 국론을 모으고 갈등을 치유할 조언과 지혜를 듣는 7대 종단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가 낮 12시부터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대통령은 오찬 내내 이분들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7대 종단이 국가안보의 위중한 시기에 국론 결집과 국민화합을 통해 나라를 바른길로 이끄는데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이후 세 번째인 종단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는 (사)고운국제교류사업회 이사장이신 최근덕성균관장께서 참석하셨다.

〈대통령 말씀〉

먼저 이렇게 7대 종단대표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때 우리 7대 종단 대표분들께서 나라가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 진솔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라는 조언도 이번 일에서 뿐만 아니라 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가슴에 지니겠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복판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져 국민들의 불안과 심려가 크다. 그러나 대통령은 심증만 갖고 원인을 예단해선 안된다. 원인을 두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데 국가 안보에는 하나의 목소리여야 한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도 이념도 들어설 수 없다. 이럴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단합해야 한다고 본다. ... (중략) 이번 기회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 결과가 나왔을때 어떻게 대처할지 사전에 많은 스타디를 하고 있다. 오랫동안 7대 종단이 크고 작은 나라일이 생길 때마다 힘을 모아주셔서 평소에 고마운 마음을 늘 갖고 있었다. 이해해주시고 와주셔서 감사하다.

(최근덕 성균관장)

우리나라가 국운이 상승기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보통 상승기에 '사건'이 많이 생긴다. 이번 일을 약으로 또 거울로 삼아야 그것이 전화위복 아니겠나. 우리 국민들은 화를 복으로 만드는 저력이 있다. 그래도 유능제강이라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법이다.

대통령께서 '단호한 대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사태가 잘 마무리되면 그때는 좀 더 부드러운 어감의 말씀을 선택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 금탑산업훈장 수상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이 2009년 12월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09년 대한민국기술대상 시상식'에서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기술진흥부문 최고상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날 시상식에서 최 회장은 지난 40년간 냉난방 산업 발전을 위해 신기술 개발 및 기술의 국산화에 기여해 기간산업을 발전시킨 공로가 인정받았다.

그는 1962년 냉난방기업인 '귀뚜라미그룹'을 설립해 국내 최초로 화목이나 연탄아궁이를 사용하던 재래식 부엌을 기계화시켜 국내 가정용보일러의 효시인 취사, 목욕, 난방 겸용 보일러를 개발 공급했으며 1970년대 국내 최초로 기름보일러를 개발하여 KS1호를 탄생시켰다.

특히 현 정부의 중심 정책사항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연료인 펠릿보일러, 4번 타는 보일러, 수소연료전지 개발 등을 수행



하고 양산해 국내 난방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기여했다.

최 회장은 또 산업기술 진흥을 위해 1996년부터 '공학한림원 대상, 젊은 공학인상'을 제정해 지금까지 모두 32억 5천만원을 기부했으며, 어려운 청소년과 우수 학생 장학금 및 대학 학술 연구비 지원 등 모두 400여억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2006년에는 지난 60년 동안 산업현장에서 한국의 산업을 일으키는데 기여한 엔지니어에게 시상하는 '한국을 일으킨 엔지니어 60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09 대한민국기술대상 시상식

산업기술진흥 유공자포상

세계 100대 공작기계업체 선정



최진식
(심팩그룹 회장)

(주)SIMPAC이 지난 2월 공작기계전문 조사기관인 가드너사 Metalworking insider's report자료에 따르면 2008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세계공작기계업체 매출순위 82위를 기록하였다.

전세계 공작기계업체들을 대상으로 각 회계연도 기준 공작기계 매출 순위를 발표하는 이 리포트에서 (주)SIMPAC은 2008년 말 공작기계인 프레스 매출액 129,166 백만원을 기록(120.1US\$-Mil)하여 한국기업으로는 전체 4위에 오르며 중견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는데 한국기업으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15위를 기록 수위를 차지하였으며 WIA, 화천이 그 뒤를 이었다.

* 구 mbc경영센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번지 / 지하 4층, 지상 17층, 연건평 6,881평)를 구입하여 리모델링이 완료된 그룹 신사옥에 지난 4월 입주를 완료하였다.



Machine Tool Scoreboard

Rank	Company Name	Country	2008 Total Sales (US \$ Mil)	2008 Total Revenue (US \$ Mil)	Major Brands
77	Shen Sheng	Taiwan	128.0	128.0	None
78	KMT, Hainan	China	128.0	128.0	None
79	Starfil	Italy	128.0	128.0	None
80	Tool Machines	Japan	125.4	125.4	None
81	Shimoda	Japan	122.0	122.0	None
82	SIMPAC	South Korea	120.1	120.1	None
83	Mitsubishi	Japan	118.0	118.0	None
84	Starfil	Italy	118.0	118.0	None
85	Tokai	Japan	118.0	118.0	None
86	Falson	Italy	118.0	118.0	None
87	Lathes-203	China	118.0	118.0	None
88	Starfil	Italy	118.0	118.0	None
89	Starfil	Italy	118.0	118.0	None
90	Starfil	Italy	118.0	118.0	None

Rankings are based on worldwide sales of machine tools and related equipment within various financial markets and by machine tool makers as included. Data on public companies may have published reports. Data on private firms may have been compiled through industry associations. All data include total operating companies as included. Some private firms may not be reported as they are not included in the industry survey. Machine tool sales may be calculated as a percentage of total sales. The percentage may be published, required publicly by a company official, or estimated from other sources. In the case of updates and modifications, please correspond directly to the editor of Metalworking Insider's Report.

Website: www.metalworkinginsiders.com
 ©Copyright Insiders Publications, Inc. All rights reserved.



CU그룹 최동규 회장

2010년 4월 17일 포천채석단지 기공식이 있었다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최효석 회장 참석

4월 21일 오전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 회의가 "지역발전이 국가 경쟁력"이란 슬로건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경남종친회 최효석회장께서 세번째 발제자로 발표하셨다.



S&T그룹 최평규 회장, '소통경영'으로 '창조경영'



S&T그룹 최평규 회장은 2월 마지막 주말,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S&T대우 'Global Jump!' 워크샵의 전체 프로그램을 사원·대리급 200여명과 함께 했다. 둘째 날 열린 '경영진과의 대화'에서 강조한 최회장의 메시지를 요약 정리했다.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S&T그룹의 경영철학은 정도경영, 현장경영 그리고 투명경영입니다. 이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저의 30년 기업경영에서 얻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S&T를 지탱하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 경영철학을 실천하는 기본은 '관심'입니다.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회사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직무와는 다른 분야라 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더 큰 자기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통만큼 중요한 자산은 없습니다”

“최대한 말을 많이 하라!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요구해 온 주문입니다. 말은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말을 잘 못하고, 또 하지 않는 사람의 유형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없거나, 정보공유에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침묵이 금(金)이었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실수를 좀 하면 어떻습니까?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다보면, 오히려 자기 발전에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회사 업무를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까지 솔직하게 나눌 때 불신은 사라집니다. 회의나 공공장소 등 특히, 대중(大衆)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친한 사람하고만 대화하는 경향도 탈피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소통의 범위도 넓어지고 조직도 활성화됩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단순히 좋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S&T대우 신입사원 최종면접에 직접 참관하면서 자기표현을 잘하는 사원에게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어젯밤 어울림 한마당은 여러분의 패기와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무척 좋아합니다. 2월에 입사한 신입사원들과는 벌써 소주도 한잔 했지요. 제가 젊은이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표현’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자기표현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반면,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지만,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진화를 거듭하면서 훌륭한 제품으로 탄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팀이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이유죠”

“한 사람의 의인(義人)이 세상을 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 회사를 살린다’는 주인의식과, 자신감이 가득 채워졌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소통’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친환경기업, ‘그린 플랜트(Green Plant)’

S&T중공업은 ‘그린 플랜트(Green Plant)’ 조성을 위해 국내 기업 최초로 사내의 유희부지를 대단위 유채꽃밭으로 조성해 사원가족과 지역민들에게 개방했다. 특히 지난 4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창원 외동 S&T중공업 본사 사내 유희부지 18,480㎡(5,600평) 유채꽃밭에서 ‘S&T 유채꽃 나들이’ 특별행사가 열렸다. 부대행사로 ▲ ‘S&T중공업 사회봉사단’ 발대식 ▲제5기 S&T 여성교양강좌 ▲백일장 및 사생대회 ▲사진 콘테스트 ▲붓글씨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S&T중공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고, 그 동안 각 부문별로 진행해 왔던 사회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S&T중공업 사회봉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날 행사에는 창원 동보보육원생 15명이 특별 초청되었다. 이와 함께 ‘제5기 S&T 여성교양강좌’를 동시에 개최해 방우정 대구과학대학교 교수의 ‘긍정적 마인드의 힘’ 주제 특강도 열렸다.



이 時代에 아름다운 企業人 松元 崔忠炯



松元과의 만남은 1967년 大學 2學年 때였으니 벌써 40餘年을 훌쩍 넘어 半世紀를 바라보는 셈이다. 살기 어려웠던 時節에 이 인연의 끈은, 수차례 앞 뒷집을 살면서 人生의 愛환을 함께하며 知天命을 넘어 耳順에 이르렀으니 어찌 필설로 다 할 수 있는 인연이라 할 수 있으랴!

松元은 춘궁기가 있던 '60年代'를 살아온 이 時代 모든 이들의 삶처럼 힘들고 고달픈 日常 이었으나, 곳곳하고 열심히 그 人生을 忍耐하므로써 오늘날 그가 할 말이 있고 할 수 있는 행동과 哲學이 있는 企業人의 길을 스스로 열고 달려왔다. 그의 人生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멘토는 그의 모친이자 엄격하고 강한 母情의 소유자였던 鄭貴男 여사였다.

그는 늘 어머니 생전의 훌륭한 뜻을 잊지 않았고, 그의 삶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흠모와 연민의 정이 곳곳에 묻어 있다.

그가 企業人으로써 성공을 이루어가면서, 어렵적 가난했던 學窓時節을 회상, 우수하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後學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 향토의 명문 창신교에 어머니의 합자를 빌어 귀남관을 건축,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었는가 하면 귀남체육관, 귀남장학재단을 연이어 설립,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보은을 사회 환원으로 승화시켰다.

이후 松元장학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주변에 보이지 않는 온정의 마음을 펼치고 있지만 오늘날까지 그는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善行으로 무대의 전면 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한 그에게 사회적 명예와 직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으나 企業人으로써의 외길을 고집하였으며 이 후 그가 맡은 대회적인 첫 공식 직함은 "경남 장애인 재활 협회장"이었으니 그가 가슴속에 새겨 두었던 뜻을 살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삶의 큰 고비에서 두 차례 어머니의 뜻에 따라 꿈과 열정을 꺾었다. 한번은 국내 최초 에베레스트 원정등반대의 최종 공격조에 선발되었으나 어머니의 반대에 수년에 걸친 훈련과 젊은시절 꿈 꾸어 왔던 山岳人으로써의 목표를 접었다.

또 한번은 ROTC 7期로 군을 마친 후 바다를 向한 마도로스의 꿈을 실현 하고저 해양대학 1年 과정에 지원 갑종2등 항해사의 자격을 취득,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취항 하였으나 아들 셋 중 둘 씩이나 외국으로 보낼수는 없디시던(장남 최형경 박사는 심장관련 최고권위자로 New York주 거주)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므로써 이 꿈마저도 접었다.

그는 후일 "일찍 혼자 되어서 3男 2女를 훌륭하게 키워 낸 어머니의 母情 에는어떠 한 것도 앞세울 수 없었노라"고 아쉬워 했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는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후 Lotte 그룹과 삼성전자를 거치면서 국내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매사에 얼마나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었던지 가는 곳마다 그의 실적은 최고였다.

정확한 년도를 기억 할 수는 없지만 70年度 後半 2개년에 걸쳐 三星電子 년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그야말로 "Marketing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최고의 영예를 누렸는데, 이때 그가 받았던 부상은 호암 이병철 회장이 입으시던 양복이었는데 얼마나 감격했는지 오랫동안 안방 벽면 중앙에 걸어 두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松元은 젊은시절 三星그룹에 근무하면서 뚜렷한 企業觀, 투명경영에 대한 食見,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 이러한 실로 중요한 안목을 키워 왔다.

이러한 결과 그는 철강업계 최고 권위의 포스코가 주는 최우수 경영자상을 비롯하여 모범상공인(국무총리), 사회책임경영분야대상(중소기업청), 투명 회계대상(한국회계학회), 한국메세나인상(문광부), 사회복지공헌 대통령상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회적 평가를 받았다.

그는 트럼펫 연주에도 출중한 재능이 있었다. 젊은 시절 앞 뒷집에 민폐끼나 끼친 숨씨지만, 그는 뜻을 이뤄 마산실버오케스트라를 조직 오스트리아 빈에 40여명 단원을 이끌고 한달 여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으며, 현재도 경남재즈 오케스트라, 경남오페라단, 마산관악합주단에 관여 하면서 트럼펫 주자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과 더불어 경남스틸(주)을 국내 최우수 금융기관으로 부터 신용2등급으로 평가되어 국내 우수 재벌그룹과 같은 등급을 획득하였고, 무 차입 경영 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기업경영에도 일가를 이룬셈이다

오늘날 松元이 지역내에서도 열린 경영으로 존경받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베푸는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은 그가 지역에서 맡고 있는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써의 소임을 행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들이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는 가정과 조직으로부터 동의와 공감의 절대적인 전제가 될 것이다.

오늘 紙面을 빌어 잠깐 言及하고 싶은 것은 부인 조수열 여사의 뒷 이야기이다.

조수열여사는 창녕조씨 엄한 가정교육과 최고 학부에서의 세련된 교육이 잘 조화된 명석하신 분으로, 살아온 시대적 격차로 신사임당에 비유할 수는 없으나 주변에서의 칭찬이 마르지 않는 분이다.

이러한 내조의 현명함이 없었다면 오늘날 松元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녀는 한때 마산에서 연극활동을 한 바 있었다.

여름철 주변 친구들의 휴가 필수코스는 공연관람이었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녀는 비교적 가벼운 단역에 그쳤 으므로 좀은 어색하고 서운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였으나, 본인은 역할의 크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었을 때 더 행복 하다 던 모습이 인간 조수열의 진면목이 아닌가 싶다.

어느때가 그녀가 전국체전에 참가한다는 소식이 깜짝 놀랐었고, 승마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였다는 결과에 또한번 놀랐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모두들 잊어버려 그때 일반부 참가팀이 3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남 체육회의 간곡한 권유에 경남도민으로써의 도리를 생각했던 사건으로 마산 시민으로써 지역문화활동에, 경남도민으로써 지역 명예를 위한 Sports 기여가 매사에 순박하고 긍정적이었던 조여사의 평소 모습의 한 단 면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부모의 품성아래 이룬 가정에 한치의 흐트러짐이 있을까?

松元은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 長男 석우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三星電子에서 근무한 후 현재 서울大 대학원 MBA과정과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으며, 次男 석환은 내외가 함께 서울大 法大를 졸업하고 해군사관학교 교수 를 거쳐 東京大 法大 대학원에 유학중에 있다.

이 가정이 갖는 경쟁력은 다양성에 있다. 각각의 개성이 어우러져 빛어내는 화음에 긍정적인 인자가 접목 되므로써 가부장적 권위와 조화로운 화합을 이루며, 이를 바탕으로 松元의 경쟁력은 "귀에 익은 클래식 한 소절의 아름다움을 연주하고 있는 듯"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 에 있다.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人生史라 했던가...

오늘날 松元이 참으로 긴 人生의 여정에서 힘들었지만 아름답게 이룬 삶에 박수를 보낸다.



* 주) 이글은 지난 3월 17일 국립창원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영득한 친구 최충경을 수십년간 지켜본 죽마고우 이동걸님께서 쓰셨다

* 글쓴이 이동걸(李東杰)님은 정통뱅크로서 1948년 대구출생, 영남대학교 경제학과졸업, 1970년 한일은행입행, 1987년 신한은행입행 후 비서실장, 부행장, 신한캐피탈 대표이사 사장, 굿모닝신한증권 대표이사 사장, 신한금융투자그룹 부회장 겸 이사회회장을 역임후 2010년 4월에 퇴임하셨다



경남여성경영인협회 제5대 회장 최정심

경남여성경영인협회 제5대 회장 취임식이 3월18일 창원 인터내셔널호텔5층 그랜드볼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회 상임고문이신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회장께서 축사를 하시고 내빈으로 이창세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종친회장 효석, 최철안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김순규경남신문회장, 박완수창원시장, 황철곤마산시장, 정현태남해군수, 이달곤, 김두관 전 장관, 최숙희고문(전 경남도여성보건의복지국장) 을 비롯한 수많은 내외귀빈이 참석하여 축하하였으며 본회에서는 부회장 병문, 이사 치용, 병식,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가수 “예진” 가정의 달 5월, 孝道 큰 선물, 악극 “비내리는 고모령”에서 구성지고 맛깔스런 연기와 노래 선보이다.



2009년 신곡 “알콩달콩”과 “서울대전대구부산2”를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가요활동을 재개한 가수 예진(본명 최예진)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익산 문화예술회관과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흘러간 옛가요속에 애절한 사연이 펼쳐지는 악극 “비내리는 고모령”에 신세대 여성인 “유정”으로 출연하여 오랜만에 무대에서 팬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악극무대는 가수 예진에게 친정집이나 다름없는 친근한 곳이다. 학창시절부터 타고난 노래실력을 인정받은 예진은 선생님의 권유로 국악을 시작하여 정인경 명창의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아 고등학교 재학시절이던 1996년과 1997년 전국청소년 국악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전체대상을 받는 등 타고난 재질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이후 1998년 시조창극 “이화우 흥날릴 제”로 시작하여 악극 “홍도야 울지 마라” 등 다수에 주연으로 5년 여 동안 최고 톱스타로서의 자리를

지켜왔었다.

그동안 악극배우로서 지켜온 정상의 자리를 포기하고 가수로서의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예진의 음악적 소질을 아까워한 주변분들의 권유와 성원때문이었다. 2003년 “여우1집” 발표 이후 2009년 “Happy Woman”까지 수회의 싱글 앨범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가수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천부적 예능인 끼를 지닌 예진, 청량하면서도 매력넘치는 예진 특유의 음색은 듣는 사람들에게 진정 우리가요의 참맛을 느끼게 한다. 가녀리지만 때론 파워풀한 그녀의 목소리는 물질문명에 메마른 현대인의 가슴에 청량제와 같이 우리의 감성을 촉촉이 적서준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했던가? 한창 飛上의 나래를 퍼던 예진에게 3년전,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던 부친의 갑작스런 별세와 기획사와 불화 등은 예진에게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게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남신문 주최로 열린 5월8일 창원 성산아트홀 공연 후 팬들과 만난 예진의 모습은 예나 다름없이 밝고 활기찼다. 이번 "비내리는 고모령" 출연도 공연 10일전에 갑자기 제의를 받아 내심 걱정도 많이 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인환, 최주봉 등 기라성같은 베테랑 선배들과 완벽히 호흡을 맞춰 예진의 실력이 녹슬지 않았음을 보여 줬으며 출연진으로부터 공연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는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든든한 가족과 나를 사랑해주는 팬들이 있잖아요". "죽어서도 네곁에서 항상 너를 지켜주겠다"던 돌아가신 부친의 유언 대목에서 평소 낙천적이고 성격 좋기로 소문난 예진이도 눈가에 살짝 이슬이 맺혔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예의바른 모습에서 慶州崔氏 가문의 당차고 똑소리나는 여인네의 기상을 느낄 수 있었다. 신곡 "알콩달콩"의 대박과 예진의 앞날이 그녀의 밝은 미소만큼이나 환하게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취재/사무차장상천)



***프로필**

본명 : 최예진(33세손) / 예명 : 예진 / 출생 : 부산 동구 초량 / 생년월일 : 1979년 6월 12일(음, 5.18)

***주요경력**

- 1996 청소년 국악대회 (최우수상)
- 1997 전국 청소년 국악대회 시조창부분 문화체육부장관상 (전체대상)
- 1997 97회 전국 미스춘향선발대회 본선 진출 입상
- 1998 시조창극 이화우 흥날릴제 공연 (주연)
- 2000 악극 뮤지컬 흥도야 울지마라 공연(주연)
- 2001 창극 뮤지컬 맹진사대경사 공연 (주연)
- 2001 악극 뮤지컬 군세어라 금순아 공연 (주연)
- 2002 영화 이현세 원작 두목 자이언트, 여주인공 출연

- 2003 여우 solo1집 댄스솔로정규앨범
- 2004 여우 solo 2집댄스솔로정규앨범
- 2006 전통트롯가요 여자 (신인상수상)
- 2006 9월 예진1집 (12o.clock)정규앨범세미트롯
- 2007 3월 예진 2집(foxy trot)정규앨범 세미트롯
- 2007 kbs TV 소설아침 드라마 그대의 풍경 ost
- 2009 7월 "YeJin 2nd Album (Happy Woman)" 발표 / 수록곡 : "알콩 달콩"

광장

최해범

최미숙

최기석

최남백

최덕희



창조적 통합시를 탄생시켜야...

경남지역에 거대 통합시가 곧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경제·사회적으로 인근 지역과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통합 행정권이 출범한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으로서의 대단한 사건이다.

그렇지만 인구와 도시면적이 늘고, 경제권역이 확대되는 것, 통합에 따른 잠재력 확대 등 핑크빛 전망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통합시의 구체적 실현 단계를 거치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불거질 수도 있다. 통합된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점에 대해서도 쉽게 확신을 하기 어렵다. 일본이 과거 200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1000여 개로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행해졌지만, 통합된 지역의 경우 대부분 경제와 산업, 인구의 중심부 집중 현상이 심화됐고, 주변부 인구는 오히려 감소한 바 있다.

각기 다른 행정구역에서, 조금씩 다른 정서에서 생활해 온 주민들이 성급하게 통합하는 데 따른 이질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 지역이었다 해도 그동안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문화며 의식, 사고 등이 고유하게 고착돼 왔던 터다.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다. 통합 이후에도 도, 통합시,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행정계층이 그대로 남는데 과연 비용절감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제주도 행정통합의 사례에서 보듯이 행정효율, 지역 균형 발전, 투자활성화, 규모의 경제 효과 모두가 허사였고, 통합에 의한 인구 규모가 커지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창원, 마산, 진해의 통합도 행안부가 주도하면서 몇몇 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형태로 진행됐는데, 민주주의, 지방자치, 주민자치, 주민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미흡한 데가 분명 있었다.

그러나 일단 통합시가 출범하게 된 이상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새로운 도시의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 우선 행정효율이 제고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3개 시 공무원들 모두를 합해 통합시청, 구청, 읍면동에 골고루 분산 배치하는 손쉬운 방법은 곤란하

다. 조직진단으로 적정공무원 수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 때로는 인력 조정이 수반돼야 하고, 단순한 재배치가 아닌 개혁적인 조직·인력개편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최해범

(한국관세학회 회장 /

창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지역 간의 역할분담 문제도 중요한 사안이다.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 항만과 물류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문화와 관광에 초점을 맞추는 지역 등 커다란 지역을 대략의 카테고리로 구획해서 거기에 합당한 발전전략을 수립·운영해 나가야 하겠다. 통합시를 고급화하는 데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육환경이며, 문화여건이 성숙돼야 한다. 고급인재를 수용하려면 수준에 맞는 일자리와 교육·문화적 환경 등이 수반돼야 함은 당연하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계속 고도화시켜나가야 하겠다. 산업활동과 생활환경, 문화 모두가 어우러져 선순환을 이루면서 통합시가 완결되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통합시가 그러한 모습으로 탄생하기를 희망해 본다.

창조적 도시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창조적이고 고급화된 도시란, 고급의 일자리를 바탕으로 창조적 인재가 모여면서 전반적인 문화양상이 선진화를 지향하는 곳이다. 산업과 과학,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를 말한다. 통합시는 산업화에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과학이 약하다. 과학기반을 확충하는데 통합시의 청사진과 기초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문화적 기초 확충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국의 관심이 이곳에 쏠리고 있다. 게다가 기계, 조선 등 산업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부산 등 해양기반을 연계할 수도 있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통합시-부산-울산을 광역권으로 묶어 창조도시로 새롭게 디자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의 구도가 달라지지만 않는다면, 이 지역 자체가 창조도시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래를 향한 꿈을 간직하면서 통합시의 도시를 짜임새 있게 바꾸어 나가야 할 시점이다.

고운 시조 할아버지의 기념관이 있는 중국 “강소성 양주시”

만리장성으로 둘러싸인 신비의 나라 중국! 자금성으로 잘 알려진 중국! 전설인줄만 알았던 진시황의 커다란 왕릉이 실제로 발굴됨으로써 중국인들의 고대 문명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지게 된 중국! 또 세계적으로 13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진 나라 중국!

그러나 이렇게 알려진 관광지 외에도 보이는 곳, 발 닿는 곳, 어느 한곳도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 과연 땅이 넓기도 하구나 하는 감탄사를 머리에 세기다 보면 어느새 비행기는 할주로를 달린다. 이렇게 또 중국 관광이 시작되는데 오늘의 코스는 우리의 시조 최치원 선생님과 밀접한 관계를 안은 도시와 그 인근 관광지 인지라 더욱 마음이 간다.

“강소성의 양주”

이곳은 춘추시대 오나라 부차가 성을 쌓아 도시를 건설하였고 이후 삼국시대에는 오나라 손권이 잠시 도읍으로 삼아 진강을 남경의 입구란 의미로 경구라고 불렀으며 장강과는 대운하로 연결되어 예로부터 양주는 수상교통의 중심지로 번창한 도시였고 역사적으로 중국 세수의 약 25%가 이곳 양주에서 걸었다고 할 만큼 물산이 풍부한 부유한 도시로 강택민 전주석의 고향이 있는 곳이다.

특히 양주는 한겨울에도 채소가 날 정도로 기후가 온화하고 진강에서 나는 식초를 매일 마시면 암도 치유된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도 이름난 식초산지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양주는 우리나라 역사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고구려 영양왕이 태자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건립하였다는 고민사와 고구려 미인 아희와 수양제와의 전설이 담긴 단양주의 전설이 있고, 당태종과 연개소문의 설화가 얽힌 곳 등이 있으며 또한 신라의 천재 문인 최치원 선생이 당나라 과거에 급제하여 양주에서 8년간 관리를 지냈으며 그 유명한 토황소격문을 지어 당나라 때 황소의 난을 평정하여 펜이 칼보다 강함을 보여주었고 계원필경집도 이곳 양주에 근무할 때 집필했다고 한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정부가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중국내 기념관 건립을 승인하여 당성유적지 안에 최치원 기념관이 건립



되어 있어 우리 시조의 천재성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지고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하는 곳이다.

그러나 양주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구려와 관련된 고대유적과 기록 등을 근거로 보면 일부 역사 학자들이 중국의 강소성 일대가 옛 고구려의 영토였다는 주장에 동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마음도 드는 곳이다.

이곳 양주의 대표적 관광지로는 높이가 44m인 아주 작은 섬으로 장강 기슭에 있으며 “금산사 절 안에 산이 있다”고 할 만큼 금산과 금산사는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금산사. 양주의 8대 고찰중의 하나로 수나라 시기에 처음 건축되었고 고구려의 태자가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고구려의 왕이 금과 은 등 재물을 기증해 사원을 확장하였다는데 고구려의 높을 고 자를 취하여 이름 지었다는 고민사. 베이징, 상해, 항주 서호의 야경과 함께 중국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야경 중의 하나인 양주의 고운하 야경.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양주 시내의 옛날 모습을 재현한 옛날거리 동관거리
대운하로 유명한 수나라의 양제 때 항주 서호를 본 따서 만든 인공 호수인 수서호, 그리고 당성유적지 내부에 자리한 최치원 기념관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많은 관광 자원을 갖춘 양주 인근에는 무석과 항주라는 더 많은 자원의 도시가 있으니 무석은 중국 제 3대 담수호인 태호로 유명한 강소성의 남부에 위치한 태호반의 빛나는 명주다. 농산물과 수산물이 풍부해 어미지향이라고도 불리는 풍요로운 도시로 현재는 공업이 발달한 공업도시기도 하고 장강삼협의 각 주가 시장을 활발하게 하며 동쪽으로는 상해, 서로는 남경, 남으로는 태호와 접하고 있다.

무석에는 첫째로 중국에서 가장 큰 청동불상인 영산대불이 있으니 88m 크기로 중국에서 제일 높고 거대한 불상으로 꼽히며, 불경중에 묘사된 석가모니의 32상에 의거해 형상화된 자애롭고 미소를 머금은 얼굴을 비롯해 전체의 모습이 위엄과 자비, 안정의 느낌을 준다.

두 번째로는 삼국지의 촬영장소, 삼국성으로 태호반에 있는 “삼국연의”의 촬영장소다. 성내에 한나라의 오왕궁, 감로사, 칠성단, 봉화대 등 수십개의 대형세트와 20여개의 고전선 등을 그대로 재현해 놓아서 마치 옛날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세 번째로 중국 삼대 담수호인 태호로 “태호를 빼고 무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아름다운 호수를 갖고 있다.

그 외 항주는 너무도 잘 알려진 지상낙원의 도시, 물의도시, 미인의도시 등 많은 수식으로 연중 끊이지 않는 동서양의 관광객의 발목을 잡는 곳으로 특히 저녁에 펼쳐지는 “송성가무쇼”라는 연출은 송나라의 이야기를 꾸민 것으로 조명과 무대장치와 등장인물 등 어느 하나 손색이 없고 보는 내내 사람의 혼을 빼앗아가는 정말 멋진 이 쇼로 일정을 마무리해 본다.

* 글쓴이 최미숙은 경남 창원시 팔용동소재 (주)가든여행사 대표이다.
* 여행관련 문의 및 상담 : 055-299-7277.



수구초심



최기석 / 수필가
(주)포스텍 대표이사

인간은 삶의 완성을 위해 끝없이 정진하지만 항상 그 현재는 미완성으로 남는다. 그리고 먼 훗날, 과거 속에 묻혀버린 미완성의 그 시절 그 모습을 뒤돌아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 가득 고향에 대한 본능적 그리움과 동경의 마음을 갖게 된다.

우리 한민족의 그리움과 동경의 발상은 대부분 고향의 식에서 비롯한다고 한다.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자 노력했던 시절이 어릴 적 고향이요, 성인이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교민이 사가는 대부분의 연하장도 토담이 있는 초가지붕에 박당쿨이 걸려있거나 주렁주렁 열매가 달린 감나무와 시골풍경들이라고 한다.

고사성어에 수구초심(首丘初心)이란 말이 있다. 여우가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나 자라던 굴을 향해 머리를 두고 죽는다는 뜻이다. 짐승도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마음을 비유한 말이다. 타향에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수구초심의 마음이 절실하다고 한다. 향수와 모성에 본능이 남달리 강하게 작용하여 형성된 우리 삶의 철학이라고 하겠다. 민족 대이동이 실시되는 고유의 명절이면 더욱 실감하게 되는 뿌리의식이기도 하다.

영원한 타향살이의 원조는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로 고향인 낙원에서 추방되어 평생을 타향에서 살아야 했던 아담과 이브라 하겠다. 귀향의식 또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이 우리 인류에게 남긴 삶의 부메랑이자 원초적 회귀본능이라 할 수 있다.

회귀본능이 강한 어종으로는 연어를 손꼽을 수 있다. 바다에 사는 연어가 부화 시기나, 죽을 때가 되면 태어난 모천으로의 강한 회귀본능이 있음은 인

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 회귀여로가 무려 2만 킬로미터나 된다는 사실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서울-부산 간 거리의 약 40배나 되는 상상하기 힘든 고난의 여정이기 때문이다.

회귀본능은 인간에게도 있다. 관료와 벼슬아치의 귀거래사가 그 한 예다. 타향에서 임종을 맞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이 고향땅에 묻히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그러한 이치 아니겠는가.

동족부락을 형성하며 대를 이어 민족의 뿌리를 내려온 토착민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고향이란, 생존 토양이자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상상력의 보고(寶庫)이다. 꿈과 희망을 노래하던 삶의 보금자리였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한국인의 고향의식은 참으로 많은 노랫말과 글 속에서도 살아 움직인다. 이원수의 '고향의 봄', 이은상의 '가고파'와 같은 타향인의 심금을 울리는 노랫말 등이 그러하다. 고향을 그리는 글과 노래가 어디 그뿐이겠는가?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타향살이다. 돌아갈 수 없는 고향, 잃어버린 고향의 한을 달래며 살아가고 있는 실향민의 타향살이와는 비교될 수 없음이다.

여러 사유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 힘들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주변에 많다. 서울 역사나 지하철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숙자의 생활상은 더욱 그 안타까움을 더한다. 비록은 우리 모두가 자기중심적 경쟁사회에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갈지라도, 그토록 힘들게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애환을 조금씩은 나누고 또 함께하여야 할 것이다.

진정한 우리민족 의식은 나눔과 공존의 지혜로 뿌리내린 이웃사랑 정신에서 비롯하였거늘, 이러한 민족의식이 갈기갈기 찢어져 그들 가슴에 천추(千秋)의 한으로 남아야 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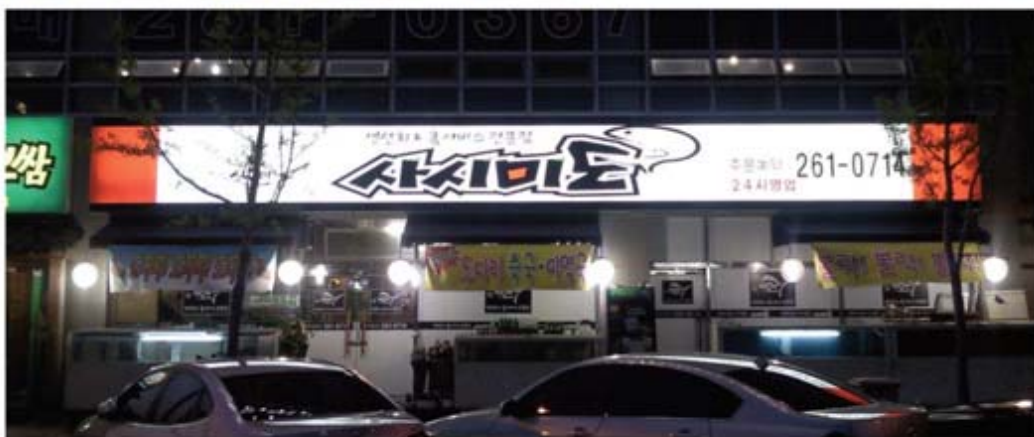
우리 종친 형제 또한 수구초심의 마음으로 서로를 아우르고 다듬으며 명문가(名文家)의 전통과 그 지혜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사시미도 횃집(대표 최남백)

저희 사시미도는 고성, 통영등 산지 어민들과의 직거래를 통하여 100% 순수 자연산 활어만 취급하며, 주 어종은 도다리, 뽕락, 하모, 돌돔, 대구, 물메기등으로 제철 활어만 고집합니다.

* 사시미도횃집은 창원시 상남동(상남 상업지역) 36-3 골든벨빌딩 1층에 있습니다.

* 예약문의는 261-0714 / 대형홀과 단체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사 최덕희

(주)미래상조 - 향토기업

소재지 : 경남 마산시 창동 3-1 창동O/P 4층 창동4거리
평안안과위 농협 4층
지점 현황 : 2지사 8지점

상조의 필요성

과거 우리의 선조들은 친척이나 이웃들 간 서로 돕고 의지하며 집안의 대소사인들, 결혼, 칠/팔순, 장례 등을 해결해왔으나 요즘은 핵가족화 되고 산업화 되는 과정에서 예절이나 절차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일손도 부족하여 행사 진행에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향토기업인 (주)미래상조에 의전업무를 맡기셔야 회사 직영으로 구성된 의전 팀이 직접 행사를 담당합니다.



상조업규제법(할부거래법개정법률안 공포)

법안의 주요내용

상조업 등록제(등록요건 및 결격사유 상세규정)

- 중요정보고시 사전제공
-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증명서 제공
 - 소비자 선수금의 50/100 국가지정 금융기관 예치
 - 공제조합설립 공제계약 체결
 - 보험계약(국가 지정 보증보험회사)
 - 채무지급 보증계약(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법 시행 전
 - 소비자 모니터요원 50명 상시 감시
 - 소비자, 상조업체 대상 법 개정 취지 및 내용 홍보, 교육
 - 다단계, 영화관, 홍보관, 노인정 등 영업행위 단속 강화
 - 타법에 의한 단속 강화(다단계 판매법, 방문 판매법, 표시 광고법)
 소비자피해방지 위한 입법 - 더 이상은 불안해할 이유 없다



2010년 02월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10년 03월 09일 국무회의 의결 공포
9월 시행

상조가입의 이점

- 편리성 : 전화 한 통화로 모든 준비 완료 / (주)미래상조 행사의전 팀 진행
- 바가지 상훈의 배격 : 비용 절감
- 물가보상적 가치 :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계약 당시의 물품 그대로 적용



종친회소식

고운국제교류사업회

부산종친회

호남종친회

경남종친회

진주화수회

창녕화수회

함양종친회

곤양종친회

충남종친회

보령종친회

주포, 주교종친회

경북종친회

팔우정종문



고운국제교류사업회 제3차 이사회

1. 일 시 : 2010.1.31(일) 11~12:30
2. 장 소 : (사)고운국제교류사업회 사무실
3. 참석자 : 이사장 최근덕 / 이사 : 변정환, 최염, 최수인, 최성해, 최병주, 최우진 / 배석임원 : 경주최씨중앙종친회 회장 및 고운사업회운영이사회 회장 최시중 경주최씨중앙종친회 감사 및 고운사업회운영이사회 간사 최동전 / 간사 : 최영심
4. 회의내용
 - 1) 이사장 인사
 - 2) 운영이사회 회장 인사
 - 3) 2009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및 감사보고
 - 4)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 ① 2009년에 이은 계속사업
 - 고운총서 제2집 및 3집 간행
 - 중국 양주 기념행사(2010년10월15일)
 - CMS 확대 실시 / - 월력제작 배포
 - ② 2010년 신규사업
 - 법인기금 및 고운회관건립비 확대 방안
 - 경주최씨 명현문집번역 간행
 - 한중문화교류 행사
 - 한중서예가 고운 명시 연묵전 / 한중일 고운사상 국제 학술회의
 - 고운회보 간행(년4회 계간)



고운 국제교류사업회 제4차 이사회

- * 업무보고
 1. 2010년3월30일 결산세무 보고
 2. 고운연구총서 2집 발간
 3. 고운회보 진행 상황
 4. 2011년도 달력제작 준비 상황
- * 안건
 1. 감사 및 이사 선임.
 - 1) 최기선 감사의 임기 만료로 인하여 최병운 감사로 선임.
 - 2) 연임 이사 : 최염, 최효종, 최영철, 최성해
 - 3) 신임 이사 : 최우진, 최영건, 최광규, 최동규, 최진식, 최등규, 최병도, 최창식, 최경수
 - 4) 고문 : 최수부, 최진민 (고문직은 정관사항 신설)
- 2. 일부 정관 변경

사무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약간의 정관 변경을 실시함.



* 2010. 5. 6(목) 12시 / 강호
 * 이사 : 최근덕, 최염, 최수인, 최효종, 최영철, 최성해, 최병주, 최우진.
 * 배석 : 최시중, 최상기, 최영건, 최영심, 김선정

고운총서 2집이 출간되었습니다

고운 최치원의 종합적 조명 제1집에 이어 2010년 4월 말 고운 최치원의 철학, 종교사상 제2집이 출간되었습니다.

o 고운 최치원의 철학, 종교사상

* 제1부. 최치원의 철학, 종교사상의 기반

- 풍류정신과 신라문화 - 김범부
- 최치원의 동인의식 - 류승국
- 고운 최치원의 동인의식 - 최영성
- 최치원 사상연구 - 송향룡

* 제2부. 최치원의 삼교사상

- 최치원의 삼교사상 - 김지건

- 최치원 유학사상의 특성 - 노평규
- 최치원의 불교사상 - 최유진
- 최고운의 도교사상 - 도광순
- 최치원과 신선사상 - 김낙필
- 최치원의 도교사상과 그 의미 - 장일규

* 제3부. 최치원의 종교사상사적 위상

- 최치원의 정치이념과 종교관 - 박종근
- 고운에서 찾아본 수운의 사상적 계보 - 조용일

● 학술 및 국제교류위원 합동회의 ●

일시 : 2010. 2. 22(월) 11시 30분~ 12시30분
 장소 : 유교학술원
 사회 : 최영심 총무부장
 참석인원 : 총 20명

1. 이사장 인사 - 최근덕
2. 임명장 수여 - 최수인 사무총장
3. 위촉장 수여 - 학술위원 : 오석원, 오종일, 최영진, 최영성, 도민재, 최복희
 - 교류위원 : 최성해, 양승무, 장병욱, 허유, 김성기, 최병주, 정상홍
4. 각 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 사무총장 : 최수인
 - 학술연구위원장 : 오석원
 - 국제교류위원장 : 최성해
5. 2009 사업현황 보고 및 2010년 사업계획 발표 - 최영 상무이사
 - 고운총서 제2집 4월 초 출간 예정.
 - 최씨명현문집 번역 간행 (위원장 : 최근덕, 간사 최영건)
 - 한중 서예가 고운 명시 연묵전 - 국제교류위원회에서 추진
 - 2010년10월 중국 양주시 국제학술대회 - 학술연구위원회에서 추진
 - 고운회보 계간지로 발행 (3,6,9,12월) - 유교신문에 위탁 최영진교수 담당 편집
6. 폐회 - 새만금에서 오찬



최현돌
(부산종친회 신임회장)

존경하는 전국의 종친 가족 여러분!
종친회 일원으로서 이렇게 지면을 빌려 여러분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중의 어르신들과 형제님들께서 저에게 소임을 명하셔서 2010년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종친회장이란 중책을 맡은 것은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마음 한 편으로는 큰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임을 맡은 이상 부산 종친회와 경주최씨 문중의 큰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종친회 형제 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 반만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한민족은 세계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예를 받들고 충과 효를 생활속에서 실천했기 때문에 오래전에 선조들께서는 다른 나라로부터 '동방예의지국' 이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큰 지류에는 여러 가문과 많은 성씨(姓氏)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경주최씨는 오랜 역사를 지닌 씨족(氏族)의 하나로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은 역사속에 살아숨쉬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번에 부산종친회장에 취임하면서 '종친회'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미 글로벌화 되어 버려 춘각을 다투는 디지털시대 속에서 잠시 뒤돌아보고 숨 고르는 마음의 여유조차 잃어버리고 앞만보고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꼭 지켜 나아가야 할 전통의 근간인 자신의 뿌리인 혈연을 잃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는데, 감히 저는 형제 가족님들께 저의 임기동안 우리자신의 뿌리를 찾아 '경주최씨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디지털문화인 인터넷 세상에서 살고있는 젊은 세대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뿌리를 찾는 일에 매진하도록 노력하여 종친의 중요함을 일깨워서 가족의 역사를 되새기게 하여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 경주최씨는 더욱 계승·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경주최씨 시조이신 고운(孤雲) 할아버님이 발원하신지 어언 천년의 역사가 지나는 동안 어느새 2백만 명을 헤아리는 후손들이 자랐으며, 그들 하나 하나가 또다시 장구한 세월을 이어 갈 후손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에 안내자가 되어 세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오니 종친형제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실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주최씨 모든 종친형제 와 가족들의 건승과 만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최씨 부산광역시 회장 최현돌

* 신임 최현돌회장은 `1949년 7월 31일 부산출생 / 동국대학교환경대학원졸업 / 부산광역시 의원 / 올림픽 부산유치위원회위원 / 한나라당중앙상무위원을 역임 / 1998.07-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수로 재직중이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기 총회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일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10일 이사회에서 선임결과 연임이 결정되어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종친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모두 회원 여러분의 믿음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소임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장에 역임하는 동안 일가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종친회로 만들고 종친회가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바램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가님들의 열정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우리 호남종친회가 창립 된지 5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재임하신 역대 회장님들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올해에는 이루지 못한 아쉬운 부분은 좀더 노력해서 이루도록 할 것이며 원거리 종친회와의 교류도 확대 할 것입니다.

종친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회장인 저 보다는 종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와 젊은 후계자들의 권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가능 하리라 믿습니다. 일가들 개개인의 힘보다는 함께 뭉친 지역 문중과 종친회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호남 종친회의 홈페이지도 완성하였습니다. 젊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라며, 종회 발전을 위한 많은 제안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호남 종친회의 회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제 생애에서 가장 보람된 추억과 업적으로 남길 소망하고 눈 앞에 이익과 이해보다는 경주 최씨의 자랑 스런 후예로 살아가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원 여러분들도 종친회를 사랑해주시고, 힘을 보태주는데 주저하지 마시기를 부탁하면서 인사말에 가름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2010년 4월 25일

경주최씨 호남종친회장 최 관 수



피는 물보다 진하다!

2010년 3월 정기이사회

1. 3월 22일 19:00 / 창원 상남동 거가한정식

2. 경과보고

- 1) 2월 1일 자문 덕희 대청골프랜드 골프샵 개업
- 2) 2월 10일 상임고문 광주 부친상
- 3) 2월 22일 띠앗회(회장 최동식)정기회 개최 / 양산 그대밭길머무는곳에 / 초청자 이사영자(양산도자기공원 대표) 회의를후 양산도자기공원 전시장 단체관람
- 4) 3월 17일 상임고문 충청 국립창원대학교 명예철학박사학위 영득 / 상임고문 광주,고문 숙희,사무총장 참석.
- 5) 3월 18일 최정심부회장 경남여성경영인협회 제5대회장 취임
 - 축사 : 최충경상임고문(창원상공회의소회장)
 - 내빈 : 중친회장 효석(창원지방범죄예방협의회회장), 최철안(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고문 숙희(전 경남여성 보건복지국장),고문 영희(여경회 고문) 및 부회장 병문, 이사 치용, 병식, 사무총장.



3. 시조 춘 형례 및 지역별 정기총회

- 1) 3월 31일 관가정공파 26대 +참판공파 8대 회장 공동취임식 서울중구 구민회관
- 2) 4월 16일 경주상서장 춘형례
- 3) 4월 17일 진주화수회 정기총회 / 부산중친회 춘형례
- 4) 4월 18일 두곡서원 춘형례
- 5) 4월 23일 곤양화수회 정기총회
- 6) 5월 1일 창녕중친회 정기총회

4. 기타

- 1) 초청임원 : 부회장 상도, 부회장 상결
- 2) 당일 식사대금을 부회장상도 (한국골재협회 울산,경남회장)께서 후원하심
- 3) 거가한정식 최경순사장이 실비로 제공하여줌.



우리가 남이가!!



2010년 4월 14일 상임고문회의(3회) 오찬

1. 보고

- 1) 상임고문총경 : 3월 17일 국립창원대학교 명예철학박사학위 영득
- 2) 정기이사회 : 3월 22일 19:00 / 창원 상남동 거가한정식
- 3) 경남스틸 : 정기주총개최
- 4) S&T그룹 : 제6기 사원자녀해외연수 일정확정 / 7.4-17(미국 UCLA / 중공업사내 5600평내 유채꽃밭 "유채꽃축제 개최.
- 5) 상임고문광주 : 진주지역 행사참석차 불참.

2. 간담회

- * 회장 효석, 상임고문 총경, 평규, 웅기, 전회장 해범 / 사무총장 옥천
- * 차기 회의시 경남여성경영인협회 최정심회장을 참석시키기로 함.

2월 띠앗회 소식

2월 22일 양산도자기공원 대표인 이사 영자의 초청으로 양산시 하북 면에 소재한 '그대발길 머무는 곳에' 개최하였다. 회의와 만찬후 도자기공원 전시실로 자리를 옮겨 전관을 관람하였다.

* 회의

1. 현재 월회비와 특별회비로 양분되어 있는것을 년 회비로 통일함
2. 골프동아리를 발족키로 하고 시범라운딩 준비를 회장단에 위임함
3. 시범라운딩은 이사로만 진행키로함

4월 띠앗회 소식

4월 22일 띠앗회(회장 최동식) 월례회가 부곡CC에서 라운딩후 창원공단전시관 지하 "금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 보고

- 1) 4월 14일 이사 영자 모친상
- 2) 4월 부회장 정옥 차남재득 결혼
2. 시범라운딩 실시
 - 1조 : 회장 동식, 형철, 규팔, 덕희 /
 - 2조 : 옥천, 두식, 병갑, 영숙
3. 골프회 창립을 의결함
 - 1) 범위 : 전체임원으로 확대한다
 - 2) 월회 : 매월 4번째월요일로 한다







창녕화수회 회장취임사

우리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줄 경인년이 시작된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세월유수란 말이 실감이 납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인간은 조상을 섬기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 왔습니다. 바로 이것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일족간의 단결을 이루어 나라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퇴색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술선수범하고 앞장서서 우리들의 귀중한 뿌리가 무엇이고 또한 선조님들의 얼을 이어받는다는 뜻으로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간다 해도 우리들의 뿌리는 영원 할 것입니다. 힘든 일은 나누고 즐거움은 함께 할 수 있는 창녕화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우리 경주최씨창녕화수회가 창립을 한지가 벌써 33년이라는 유구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양새가 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러한 모임으로 자리매김 하기까지는 일가님들의 끈끈한 정과 신뢰로써 헤쳐나간 결과이리라고 봅니다.

이에 우리 경주최씨창녕화수회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중앙중친회와 경남중친회와의 교류도 더욱 활발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청년단도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경제상황이 많이 어려웠지만 올해부터는 나아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우리 창녕도 나아질 것을 확신하며, 전국에 있는 경주최씨 일가님들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는 2010년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열심히 합시다.

오늘의 우리 창녕화수회가 반석위에 놓일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삼수 전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도 소신있는 회장이 되어 우리지역 1,500여명의 일가님들을 위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회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경남중친회 최병문 부회장님과 최옥천 사무총장님 그리고 이사님들의 방문에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앞날의 행복과 희망실현을 기대하며, 일가님들의 하시는 일과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 5월 1일 창녕화수회장 최삼판





고운 최치원 선생 사당 조성사업 계획

1. 계획의 배경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부각
-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달

2. 계획의 목적

- 지역관광자원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주제공원 조성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림으로서의 상림숲과 고운 최치원선생을 테마로 지역관광의 문화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주제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의 관광유입력을 극대화.
- 고운 최치원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지역주민 정서함양의 장 마련
지역문화 콘텐츠로서의 주제공원이자 지역주민이 휴식과 더불어 고운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의 장으로서의 교육, 체험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공간마련.(자료 : 함양군제공)

고운 최치원선생 사당 조성사업 조감도



대규모 고운시조 사당 건축공사의 준비가 진행되어 1차로 부지가 확보되었으며 지방선거후 본격 공사에 착공하게된다

곤양종친회 정기총회

4월 23일 제30차 정기총회가 사천시 곤양면 중앙리 와티부락 싱싱횃집에서 개최되었으며 최윤철회장이 유임 되었다. 경남종친회에서는 회장을 대신하여 사무총장 옥천과 이사 태석, 영숙, 병식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경주최씨 보령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 일시 : 2010. 1. 27(수), 12:00~14:30
- 장소 : 보령시 대천동 한양회관
- 참석인원 : 50명 내외
- 회의내용
 - 1) 임원선출(고문, 회장, 부회장, 자문위원)
 - 2) 회칙개정
 - 3) 2010년 사업계획 결정
 - (1) 앞으로 맥도에서 고운 시조님 고유제 시행(음력 5월 5일 11:30)
 - (2) 매년 고운 시조님 신도비 벌초 계속 실시(음력 8월 초)



고운 시조님이 유상하시었다는 맥도(보리섬)유적지,
 고운 시조님이 비문을 지으시고 시조님 종제가 썼다는 낭해화상백월보광탑비, 그리고 박정희
 전대통령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필휘호로 쓰셨다는 1973년도 건립한 시조님 신도비등
 그래서 보령종친회에서는 올해부터 맥도에서 고운 시조님 고유제를 시작으로 매년 향례를 지
 내겠다는 종친회장의 뜻이 가득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총회 소식을 간단히 올렸던 것입니다.

경주최씨 주포, 주교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 일시 : 2010. 3. 25.(목), 11:00~14:00
- 장소 : 보령시 주포면 석화촌 식당
- 참석인원 : 50여명 (여 : 11명 포함)
 - 1) 중앙종친회 부회장 겸 홍성종친회 최종돈 회장 참석 중앙종친회 현황설명
 - 2) 보령종친회 최장순 회장이 참석 2010 사업계획 설명
- 회의내용
 - 1. 부회장 최병호 사회로 진행
 - 2. 회장 최덕원(84세)의 인사말 및 종원 단결, 고운 시조님 선양사업 적극 참여 강조
 - 3. 2010년 사업계획 결정
 - (1) 음 5월 5일 <단오절> 맥도 고운 시조님 고유제 적극 참여 및 지원
 - (2) 고운 시조님 신도비 벌초에 적극 참여 등

주포주교종친회는 보령시 주포면과 주교면(옛날에는 주포이었으니 면세가 커져 분면이 됨)의 경주최씨종친회로서 오래전부터 종친회 활동이 활발하여 오는데 춘계 향례시에는 버스를 대절하여 경주, 부산해운대등에도 다니고 하는 종친회이므로 홈페이지에 소개를 하였습니다.



孤雲 崔致遠 선생 후손들의 우애의 표상 “八友亭 遺墟碑” 제막식·고유제

지난 3월 1일 경주의 관문인 경주역 인근 황오동(삼거리)에 위치한 팔우정 공원에서 “八友亭 遺墟碑 제막식 및 고유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최남수 추진위원장과 최양식 전 행자부 차관을 비롯한 경주최씨 문중 회원 300여명이 참석해 선조들의 거룩한 뜻을 기렸다.

최원식 팔우정 종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상의 얼이 담긴 유서깊은 팔우정 공원에서 유허비 제막과 고유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최상은 황남빵 사장의 성금으로 유허비가 건립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자랑스러운 유허비가 오래도록 자손만대 보존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팔우정은 1614년(광해조 6년) 창건 이래 400여년동안 경주최씨 후손들의 孝友學行의 표상으로 최치원 선생의 후손들을 비롯한 선비들이 모여 시를 읊고 학문을 강론하던 유서깊은 곳이다. 그러나 오랜세월동안 중수와 개수를 거치면서 風磨로 정자는 무너지고 碑만 남게 되어 선조의 훌륭한 얼을 기리고자 후손들이 뜻을 모아 팔우정 유허비를 세우게 되었다.

八友亭遺墟碑文

여기는 孤雲 崔致遠 선생의 후손들이 世居하던 곳이다. 후손 訥는 태조2년(1393)에 조선조 최초의 과거에 급제하여 成均館 司成으로 청백리에 오르고 대대로 문무관을 배출하면서 이곳 황오리에 정착하였다. 訥의 5대손 사헌부감찰 擎天에 이르러 후사가 없어 제종제 臣輔의 四子 繼宗을 양자로입후하였다.

繼宗은 자라면서 당숙인 진사 臣隣으로부터 학문을 익히고 壬亂이 일어나자 倡義하여 여러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무과에 올라 西生浦僉使와 藍浦縣監을 역임했다. 슬하에 아들셋을 두었는데 장자인 東老가 아들 팔형제를 두니 國俊 國弼 國欽 國章 國賓 國瞻 國成 國著이다.

繼宗은 이곳에 정자를 짓고 孫子가 날 때마다 槐木 한그루씩을 심었는데 여덟 그루에 이르렀다.

팔형제는 이곳에서 예의와 학문을 닦으니 孝友學行이 당세에 저명하였다. 이후로 이 정자에는 선비들이 모여 鄉飲酒禮를 열고 시를 읊고 학문을 강론하는 유서 깊은 곳이 되었다. 세인들이 중국 한나라 高陽里의 筍淑팔형제 고사에 따라 高陽亭이라 하였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八友亭이라 부르게 되었다.

정자는 광해조 六년(1614)에 창건되고 영조 27년(1851)에 후손 思諝이 중수하고 순조 11년

(1811)에 碑를 세웠다. 140년 후인 광무3년(1899)에 후손 廷壽가 개수하였으나 風磨로 정자는 무너지고 碑만 남게 되었다. 1960년에 이르러 경주시 도시계획에 따라 로터리가 축조되면서 비는 로터리 가운데 세워져 있다가 로터리가 철거되면서 도로변에 옮겨져 보존되어 왔다.

2009년에 이르러 팔우정공원이 조성되면서 碑를 이곳으로 옮기고 같은 장소에 八友亭遺墟碑를 세우게 되었다.



*KBS 대하드라마 名家

KBS 대하드라마 "名家"에서 주인공인 국선(차인표 扮)의 할아버지가 貞武公 崔震立 장군이며 崔震立 장군의 동생이 六宜堂 繼宜이다.

繼宗은 임진왜란 때 兄 貞武公 震立과 함께 倡義 하여 큰 공을 세웠으며 甲午年에 武科에 급제하여 西生浦僉使 등 관직에 등요되어 재직하다 光海君 6년에 藍浦縣監으로 승진임용되었으나 당시 조정에는 영창대군을 처형하고 인목대비를 廢母하는 등 非義로운 政事를 일삼으므로 이에 모든 관직을 버리고 부임을 거절하여 항명죄로 귀양까지 가게 된 清白叟이다.(자세한 사항은 중친회보 제 22호, 2009.10, 육의당 참고)





세상에서 가장 고집센

광동
우황청심원

사람을 위한 약이기에 광동은 약재 하나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구하기 힘든 우황과 귀한 약재를 골고르고 또 골라 만듭니다. 광동 우황청심원

최고의 약을 만들기 위한 46년의 최씨고집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귀한 약재만 고르고 골라 46년

광동 우황청심원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광고심의필 1010-0300](tel:1010-03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